

## ■ 연극배우 박윤모와 소설가 한승원의 만남

## “광주서 걸판진 무대 한판 벌여야죠”

연극배우의 꿈은 흐셔서 운전히 무대를 장악하는 ‘모노 드라마’. 추 송을 하면 ‘빨간 피터의 고백’이 떠오르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걸 수 있는 ‘작품’을 갖는 건 배우에겐 큰 행운이다.

광주의 연극배우 박윤모(56)씨는 1998년 모노드라마 ‘아버지’를 위해 여를 87회나 공연했다. 광주와 서울, 거창, 중국을 잇는 대장정이었다.

박씨가 오는 10월 7~19일(공동예술극장) 꼭 10년만에 다시 ‘모노드라마’에 도전한다. 88회부터 이어가 100회로 마무리 짓는 뜻깊은 무대다. 특히 올해는 원작자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과 등단 40년이라는 짙직한 의미까지 더해졌다.

지난 3일 공연이 열릴 궁동예술극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의미 있는 무대를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.

“이 작품이 저의 유일한 학곡인데 박 선생이 다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지 몰라요. 매년 한 두 차례라도 공연을 하면 좋겠다. 작품 수정을 요청해 왔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구요.”

### 모노드라마 ‘아버지를 위하여’

### 10년 만에 100회 공연 재도전

### 김성석씨 아코디언 연주 참여

한 씨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MB정권과 촛불 등 현 상황을 녹여 희곡을 수정했다며 “주인공의 삶을 통해 인생의 변수와 뿌리보다 깊은 인간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”고 말했다.

### 한승원 작가 고희 기념

88회부터는 ‘아버지’라는 제목으로 공연되는 이 작품은 고희연이 열린 연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인공 김호연이 11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일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낸 작품이다.

“모노드라마를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.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산울림소극장 임영웅 대표에게 전 무승씨를 소개받았죠. 전무승씨가 아주 연기 잘하는 배운데 전라도 사투리 맛이 잘 안살아나구요. 이 작품은 전한 사투리가 중요한데

‘진짜’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. 그 때 체희윤씨에게 박선생을 소개받았는데 역시 전라도 출신이라 맛을 제대로 내려나니까요.”

### 11남매 키운 父情

고교 시절 연극에 입문, 연극 인생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던 박씨는 이 작품에 매진했다. 매일 공연은 만석이었고, 한씨도 자주 극



광주 궁동예술극장에서 박윤모(왼쪽부터), 한승원, 김성석씨가 공연에 앞서 무대를 둘러보고 있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장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를 나눴다.

“서울 공연 당시 세실극장 하루

대관료만 60만원이었죠. 여관방 같

아 놓고 밥 해먹으며 공연했어요.

집사람이 극장 앞에서 티켓 받고,

한달간 공연했는데 의외로 관객이

많았죠. 극장 대관료 주고 나니 손

에 남은 건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

죠.”

이후 박씨의 머릿속에서는 이 작

품이 한번도 떠나지 않았다.

“다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많

았어요. 여러 번 연습하다 뒤어버

리곤 했죠.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

니 당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도

많이 보이더라고요. 좀 더 나은 작

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.”

박 씨는 이번 공연이 자신에겐

또 하나의 도전이고, 연극하는 후

배들에겐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고

말했다.

코디언을 연주하는 할아버지로 유명한 김성석(75)씨가 극중 ‘불효자는 옮깁니다’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.

“57세 때 건강이 좋아 않아 낙향해 60세 까지만 살았으면 싶었죠.

내가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글을 쓰는 나의 두

아이들과 후배들에게 전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예요. 그런 점에서 박선생도 연극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전범이 될 겁니다.”

한 씨는 “이번 작품이 지방 연극의 르네상스를 열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### 연극 르네상스 열기를

박 씨는 이번 공연을 좀 더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 셋째 딸 삼순이를 잠깐 출연시킬 예정이다. 가야금을 연주하는 이내경씨가 함께

참여하고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아

래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.

“한승원 작가는 작품에 대한

열정이 대단합니다.”

한승원 작가는 작품에 대한 열정

이 끊임없이 작품에 대한 열정

을 전해온 듯합니다.”

한승원 작가는 작품에 대한 열정

을 전해온 듯합니다.”

한승원 작가는 작품에 대한 열정

을 전해온 들판입니다.”

한승원 작가는 작품에 대한 열정

을 전해온 들판입니다.”